

■ (언론 동향) 2022.1.4. "아시아경제" 보도

○ '석탄 수출 금지' 인니 정책에 전세계 석탄값 들썩...中 8% 상승

- 中 발전용 석탄 5월 인도분 7.8% 올라

세계 1위 석탄 소비국인 중국 내 석탄 선물 가격이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 여파로 8% 가까이 급등했다. 중국의 주요 석탄 공급처인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력 부족을 이유로 1월 한 달 간 발전용 석탄 수출을 제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4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저우 상품거래소에서 석탄 가격 지표인 발전용 석탄 5월 인도분은 인도네시아의 수출 제한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인 4일 한때 7.8%까지 오른 712.4위안(약 13만3400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20일 이후 최고치다. 인도네시아의 자국 보호 방침으로 세계 석탄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됐다.

중국은 지난해 1~11월 인도네시아산 석탄 1억7800만t을 수입했는데 이는 대부분 발전용이다. 중국 전체 석탄 수입량의 60%가 넘는 규모다. 자이쿤 귀타이권안선물 애널리스트는 "인도네시아 석탄은 주로 중국 동부·남부의 해안 지역으로 가며 해당 지역 전체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자국 석탄 생산량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황이라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로 석탄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싱가포르의 한 석탄 트레이더도 "공급 감소는 확실하다. 많은 인도네시아 광산업체들이 '불가항력'이라고 선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트레이더는 다만 중국 국내의 석탄 공급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외신은 인도네시아의 석탄 금수 조치가 중국을 넘어 인도, 일본, 한국 같은 주요국 경제에 연쇄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정보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가 수출한 석탄의 73%는 이들 4개국으로 갔다.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장기화하면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중국이 지난 10월 비료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에 대응해 요소와 비료의 수출을 제한하자 한국에서는 경유차 주행에 필수인 요소수의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우리나라 정부도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응반을 구성하고 전력업계를 포함한 긴급회의를 열어 에너지·전력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통상 겨울에는 석탄을 미리 확보하기 때문에 산업부와 발전업계는 당장 공급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지만 한국 내 전력 생산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철강·시멘트 업계도 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 차민영 기자 >